

세미나 의장 李 善 子

1973년 7월 6일과 7일 양일간, 비번제 맞는 보건간호 지도자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200여명의 보건간호 이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성황리 개최되었다.

금년 세미나는 “현대 한국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라는 주제를 내걸고 각계 전문가와 저명인사 4명과 간호계의 각 분야 전문가 5명을 초빙하여 “현대 한국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라는 주제강연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 박형중 교수의 예리한 관찰로 파헤쳐진 한국가정의 문제들……

“불구 아동과 그들의 가정문제”라는 연제로 자향회 이사장 이방자여사의 불구 아동을 위한 자신의 사업소개와 애보점을 말하고 불구아동문제의 근원은 가정 문제라는 것을 덧붙여 역설했다.

또한 “근로 여성과 그들의 가정문제”로 보건 사회부 부녀 아동국장 김영자 선생의 행정적인 면에서 근로여성에 관한 문제와 대책을 다루었으며

“보건간호 사업과 가족계획”이라는 연제로 대한 가족계획 협회 이사장 이종진 박사의 구체적으로 가족을 계획하는 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간호계 여러면에서 “문제가정의 가족 간호와 간호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각도로 파헤쳐 보건간호 실무에 많은 영향을 받고 배웠으리라 믿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은 본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기관의 사업과 가정 보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시켜주기 위한 주 목적에 세부 목적은 참석자로 하여금,

1. 육체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불구아동을 위한 여러기관의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2. 큰 별이를 하는 주부와 그들 가정의 역동적인 생활과의 관계를 토의하도록 하기 위한
3. 좋은 가족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혼 상담에 대한 개념을 개발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몇편을 소개 하겠다.